

해외 영화 산업 동향

2015.03.01~04.04

I. 중국 영화 산업	1
II. 미국 영화 산업	7
III. 일본 영화 산업	8

작성 : 선임심사역 정재승 (6255-5278)
jameskr@koreaexim.go.kr



I. 중국 영화 산업

1. 국내 영화 산업과의 연계 동향

-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와 공동제작 체결
 - 3년 이내 6편 이상의 공동제작 영화 제작 계약 체결(2015.03.25)
 - 중국의 연 30%이상의 고속 성장에 반해 심각한 콘텐츠 부족을 공동제작 영화를 통해 양질의 콘텐츠 도입 추진
 - 쇼박스는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 진출 여건 확보
 - 2014년 10월, 절강성 화책(华策)미디어의 NEW(넥스트엔터테인먼트 월드) 535억 원 투자 및 공동제작 계약 체결로 경쟁 구도 형성

- 완다그룹, VFX 전문기업 텍스터 투자 진행
 - 완다(万达)그룹
 - 중국 다련의 세계 최대 영화관 체인을 보유한 문화·엔터테인먼트 그룹
 - 2014년, 약 2,425억 위안(한화 약 42조 원)의 매출
 - 상장기업인 완다 시네마를 비롯해 완다 무비파크(테마파크), 완다 영화(영화 예매사이트), 완다 영화성(극장) 등의 계열사를 두고 문화 사업을 집중 육성
 - 텍스터
 - 비주얼 이펙트(Visual Effect, VFX) 전문기업
 - '국가대표', '미스터 고'의 감독(김용화)이 설립
 -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누적 관객수 약 867만 명)의 고래 CG 및 '미스터고 3D' 고릴라 CG 등 사실적인 동물 CG 구현 기술 보유.
 - 아시아 최고수준의 VFX(Visual Effect)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
 - 2015년 상반기 중국 흥행 영화 '지휘위호산'(감독 서극)의 호랑이 CG 기술력에 높은 평가
 - 콘텐츠, 디지털, 워크숍, 랩 4개의 사업부와 중국 현지 법인으로 구성

2. 주요 정책 동향

- 양회(兩會) 주요 정책 이슈 : 영화법 도입 추진, 심사제 개선, 문제 연예인 기용 자제
-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회의가 2015년 3월 3일 개막, 회의 전후로 문화산업연예위원들의 제안에 중국 영화 업계의 이목 집중
 - 영화법 도입과 영화 심사, 등급제 등에 초점(인리(尹力)¹⁾, 왕싱동(王兴东)²⁾
 - 매년 박스오피스와 스크린 수의 기하급수적 성장이 전 세계에서 보기 힘든 현상
 - 법규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제작부터 상영까지 아우르는 제도 필요성 제기
 - 또한 영화 심사제³⁾ 개선과 영화 등급제 도입을 언급
 - 스모그 문제, 연예인 마약 복용 문제에 대한 의견 제시(영화감독 천카이거(陈凯歌))
 - <새로운 형식의 영화영상투자 장려에 관한 제안>을 제출(귀광창(郭广昌)⁴⁾)
 - 한국과 미국의 융자 및 납세우대정책에 비해 질서정연한 금융 지지와 투자 체계가 부족 언급
 - <제안>에 다섯 가지의 주장을 수록
 - 바람직하고 질서 잡힌 영화영상투자시스템이 구축
 - 영화전문기금을 출범하여 영화 산업 발전 도모
 - 납세라는 수단으로 중국영상산업의 발전 촉진
 - 전 세계 영상산업과의 교류를 통해 더 많은 합작을 추진
 - 중국 영상산업에 새로운 융자 루트를 응용시키는 것을 장려

1) 정치협상회 위원이자 차이나필름그룹(中国电影集团)의 감독

2) 정치협상회 위원이자 중국영화인협회(中国电影家协会) 부대표인, 그리고 <건국대업(建国大业)>의 각본가

3) 중국의 영화 심사는 '일비이심제(一备二审制)'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린(吉林), 광둥(广东), 저장(浙江), 산시(陕西), 후베이(湖北)성은 자체 심사를 통해 영화 제작이 가능하나, 이 외에 대부분의 성은 먼저 성에서 심사를 통과한 후 최종적으로 신문출판광전총국(新闻出版广电总局)에서 심사를 통과해야만 영화 제작이 가능.

4) 정치협상회 위원이자 푸싱그룹(复星集团)의 이사장

□ 국무원, 영화제작사 설립 인가 기준 완화

- <행정 심사비준 프로젝트 등 사항의 결정에 관한 취소 및 조정> (이하 <결정>으로 표기)
 - 결정을 각 기관에 하달함으로써 영화제작사 설립 인가 기준 완화
- <결정>의 주요 항목
 - 위성 TV 방송 지면 접수 시설 설치 허가 심사비준
 - 재중(在中) 국외 방송 영화 TV 기관 설립 사무 기관 심사 비준
 - 중외 공동 자본 및 합작 인쇄 기업과 외상 독자 포장 장식 인쇄 기업 심사 비준
 - 설립 종사 출판물 인쇄 경영 활동 기업 심사 비준 등 7개 항목이 있음
- <결정>에 대한 평가(천샤오핑(陈少峰)⁵⁾)
 - 정부기구의 간소화 및 권력의 하급기관 이양
 - 창업 및 취업 기회 증가와 미디어 관리 루트의 신속한 공정 과정
 - 창의적 문화 콘텐츠 발전의 초석 등을 언급

□ 차이나필름그룹(中影集团), 저작권 침해 혐의로 요우쿠(优酷), 바이두(百度), 시나웨이보(新浪微博) 기소

- 차이나필름 그룹 베이징영화마케팅기획자회사(中国电影股份有限公司北京电影营销策划分公司), 영화 <울프 토템(狼图腾)>⁶⁾의 저작권 침해 혐의로 바이두(百度)와 시나웨이보(新浪微博), 요우쿠(优酷)를 각각 기소
 - 차이나필름은 프랑스와 공동제작한 영화 <울프 토템>의 중국 내륙(홍콩, 마카오, 타이완 불포함)에서의 독점 저작권 보유
 - 영화 상영 기간 동안 바이두, 시나웨이보, 요우쿠 등을 통해 불법 영상이 제공되어 박스오피스 수입에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주장
 - 하이디엔(海淀) 법원은 세 건을 모두 수리하여 현재 심사 중
- 중국 정부의 저작권리 보호 정책 의지 피력

5) 베이징대학 문화 콘텐츠 연구원 부원장

6) 중국-프랑스 합작 영화(2015.02.19 중국 개봉, 2015.02.25 프랑스 개봉)

3. 산업 동향

□ 2015년 2월 중국 박스오피스 흥행수익 40억 위안으로 미국 최초 추월

- 2014년 2월(춘절 성수기) 중국 박스오피스 사상 최초 월 30억 위안(약 5,400억 원) 수익 돌파
 - <몽키킹(西游记之大闹天宫)> 개봉 영향
 - 중국 역대 박스오피스 4위(10.5억 위안)
- 2014년 7월 박스오피스 흥행 수익 36.3억 위안(약 6,534억 원)으로 신기록 수립
 - <트랜스포머4(变形金刚4：绝迹重生)> 개봉 영향
- 금년 2월엔 40.5억 위안(약 7,290억 원)의 수익으로 신기록을 경신.
 - 북미 2월 박스오피스 44.6억 위안(약 8,028억 원)
 - 캐나다가 북미 박스오피스의 10%를 차지.
 - 결국 미국의 박스오피스를 제치고 최초로 세계 1위 등극

□ 2015년 2월 전국 영화관 박스오피스 중간 점검.

- 원선(院线)⁷⁾ 순위
 - 1위 완다원선(万达院线)
 - 박스오피스 5억 4,971만 위안(약 989억 원)
 - 시장 점유율 13.47%
 - 전년대비 22% 상승
 - 2위 대지원선(大地院线)
 - 3위 헝디엔원선(横店院线)
- 전국 각 성(省) 박스오피스
 - 1위 광둥성(广东省)
 - 총 5억 6,565만 위안(약 1,018억 원)의 수익
 - 중국 전체 박스오피스의 13.92%를 차지
 - 영화관과 스크린 수 또한 각각 568개, 2,912개로 전국에서 제일 많음.
 - 장쑤성(江苏省) : 67% 상승하여 3위 진입
 - 베이징(北京)시는 6% 상승에도 4위로 순위 하락

7) 원선(院线)은 극장 가맹점에 영화를 제공하고 브랜드 및 경영 관리를 해주며 수수료를 받는 전국 상영망으로 영화 배급을 겸하기도 함. 완다원선(万达院线)이 현재 중국 최대 원선.

- 도시별 박스오피스 순위에선 2억 5,049만 위안(전국 박스오피스의 6.19%)으로 베이징 시가 1위.
- 영화관은 총 148곳, 스크린 수 906개, 평균 티켓 값은 46위안으로 전국 평균 가격보다 9위안 더 높아 전국에서 가장 비쌌.

□ 보나필름(博纳影业), 2015년 40억 흥행에 도전!

- 최근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 광선미디어(光线传媒), 보나필름그룹(博纳影业) 2014년 실적 발표
- 보나필름의 경우
 - 2014년 제4분기 총 수입 5,26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23% 증가, 순이익 22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43% 증가
 - 2014년도 전체 영업 수익은 2억 5,400만 달러로 순이익 증가율은 99.6% (1,690만 달러)를 기록
- 보나필름 실적 성장의 요인
 - 웰메이드 작품을 위한 연구, 개발 노력 및 트렌드 분석
 - 영화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시스템 구축 및 배급 전략에 중점
 -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현재 할리우드 제작사들과 합작영화 추진. (2016년 리안(李安)감독의 중미 합작 영화 상영 예정)

□ 화이브라더스(华谊兄弟电影), 미국 STX엔터테인먼트와 합작 개시

- 양 회사는 3년 내 18편의 영화 제작 합의
- STX엔터테인먼트⁸⁾(2014년 설립)
 - TPG Growth, 중국 허니캐피탈(弘毅资本), Gigi prizker, Beau Wrigley 등의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10억 달러를 투자 받아 영화 및 드라마의 제작, 배급 예정
 - 영화 배급 전략은 미국의 4대 영화관 체인인 AMC, 리갈(Regal), 시네마크(Cinemark), 카마이크(Carmike)와 직접 배급 협의를 체결 예정
 - 방송 전략은 미국 방송국 쇼타임(Showtime)과 4년 장기 배급 계약 체결(2015년 1월)로 독점 방영 예정

8) <펍크 팬더>, <더 웨딩 싱어>등의 영화를 제작해 6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오랜 경력의 영화 제작자 로버트 시몬스가 설립.

- 화이브라더스에 의하면 STX엔터테인먼트와 3년 기한의 계약으로 미국 델라웨어에 세울 전액 출자 회사 Huayi Brothers LLC가 책임 경영 예정
- 주요 계약 사항
 - 중화권 전역(홍콩, 마카오, 대만, 싱가포르 포함)의 배급권 확보
 - 향후 제작하는 모든 합작 영화의 전 세계 수익 지분 확보
- 화이브라더스의 수익 구조
 - 중화권 지역의 배급 대행비 확보
 - 투자 금액 및 약정된 이익 배당에 따른 전세계 수익 배당
 - 투자 배당에 따라 합작 영화의 저작권 보유 및 창작 범위 확대 예상
- 중국 영화사 중 최초로 할리우드 영화 제작 과정 참여
 - 투자 및 촬영, 배급 등을 통해 전세계 흥행 수입과 저작권을 분할 받는 최초의 중국 영화사⁹⁾

□ 디엔광미디어(电广传媒), 라이온스 게이트(미국)와 15억 달러 규모 합작

- 라이온스 영화사¹⁰⁾(이하 라이온스)의 합작을 공식 발표(2015.3.18)
- 라이온스의 모든 소재와 프로젝트에 향후 1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약 50여 편의 영화를 전 세계에 배급할 계획
- 연평균 30% 이상의 고속 성장률을 기록하는 중국 영화 시장에 할리우드 외 세계의 주요 영화사, 각종 관련 기관들의 관심이 집중
- 이번 계약을 통해 합작 투자 수익률이 30% 이상 예측됨에 따라 디엔광의 고속 성장이 예상됨
- 디엔광은 라이온스로부터 매년 4편의 국내 배급권을 할당받음
- 합작 기간 내 투자한 프로젝트가 계약 기한 만료 후 3년 내 제작, 시리즈 제작, 프리퀴, 리메이크 등의 경우, 조건부 투자 옵션으로 양측의 합작 가능성이 무한함

9) CJ의 경우, 1994년 쉬택 등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드림웍스에 아시아 배급권과 수익 배분을 위해 3억 달러 투자함

10) 1997년 캐나다 밴쿠버에 설립된 영화 제작·배급사

II. 미국 영화 산업

1. 한국 영화 상영 정보

□ CGV 로스앤젤레스¹¹⁾ 한국 영화 상영 정보

- <국제시장>(2014, 감독 윤제균), <조선명탐정 : 사라진 놉의 딸>(2015, 감독 김석윤), <순수의 시대>(2015, 감독 안상훈) 등 3편의 한국 영화가 상영 중

□ 제 32회 마이애미 국제 영화제 한국영화 상영

- 제32회 마이애미 국제 영화제(3.06~3.15)에서 총 4편의 한국영화가 상영
- 개막작으로 정주리 감독의 <도희야>(2014) 선정
- <거짓말>(2014, 감독 김동명), <마담뽕덕>(2014, 감독 임필성), <끝까지 간다>(2014, 감독 김성훈) 등 상영

2. 산업동향 및 박스오피스

□ 니켈로디언 애니메이션 방송사¹²⁾, 스튜디오 설립 예정

- 2016년 캘리포니아 주 버뱅크 지역에 장편 영화를 포함하는 니켈로디언 스튜디오를 설립 예정
- 현재 LA에 분산되어 있는 실사 영화, 애니메이션, 단편 영화 등 31개의 니켈로디언 작품들이 통합된 스튜디오에서 제작될 예정
- 니켈로디언 스튜디오는 애니메이션, 만화에서 영화 영역까지 확장 계획

11) CGV LA는 2010년 1개관, 3개 스크린(총 좌석수 592석)으로 국내 영화를 교민 대상으로 상영

12) 미국 어린이 전문 방송사

III. 일본 영화 산업

1. 한국 영화 상영

□ <노브레싱>(2013, 감독 조용선) 일본 개봉¹³⁾(2015.2.28)

□ <국제시장>(윤제균 감독) 관련

- 5.16일부터 ‘휴먼 트러스트 시네마 유락초’ 등 일본 전국 개봉 예정
- 일본의 영화전문 인터넷뉴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선전 중
- 일본에서 인지도 높은 동방신기 유노윤호의 예고편 등장
- 일본에서의 영화 타이틀명 <국제시장에서 만납시다 : 고쿠사이시 죠데 아이마쇼>
- 제10회 오사카 아시안 영화제(3.05~3.15) 폐막작으로 선정, 일본 최초 시사회로 프리미어 상영

□ <패션왕>(오기환 감독) 오키나와 국제영화제 상영 및 개봉

- 제7회 오키나와국제영화제 상영(3.25~3.29)
- 도쿄 시네마트신주쿠 개봉예정(4.11)

□ 시네마트롯데본기 ‘한류 마츠리’ 한국영화 기획전 개최

- 정우성, 김래원, 김남길, 소지섭, 강지환, 장근석, 현빈, 권상우 등 한류스타들의 출연작 상영.(3.07~4.03)
- <호우시절>(허진호), <내 머리 속의 지우개>(이재한), <7급공무원>(신태라), <차형사>(신태라), <...ing>(이언희), <해바라기>(강석범), <만추>(김태용), <이태원살인사건>(홍기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이윤기), <모던보이>(정지우), <폭풍전야>(조창호), <도둑 맞곤 못살아>(임경수), <기다리다 미쳐>(류승진), <즐거운 인생>(이준익), <도레미파솔라시도>(강건향), <통증>(곽경택), <포화속으로>(이재한) 등

13) ‘노브레싱’은 소녀시대 유리, 서인국 등 일본에서 인지도를 확보한 배우의 출연으로 관심도가 증폭되었으나, 한국에서의 영화 흥행 저조로 일본에서 역시 소규모 극장 중심으로 개봉됨

2. 산업동향 및 박스오피스

- <STAND BY ME 도라에몽>¹⁴⁾ 홍콩에서 대히트, 전세계 흥행수입 100억 엔
 - 올해 2월 홍콩 개봉, 7일간 흥행수입 2,400만 홍콩달러(약 4억 7,000만 엔)의 대히트 기록
 - 홍콩에서의 일본영화 흥행수입 기록이 16년 만에 갱신
 -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한국 등 12개 국가 및 지역에서 개봉되어, 전세계 흥행수입이 100억 엔 돌파
 - 2014년 8월, 일본 개봉시 약 84억 엔의 흥행 수입 기록

- 영화배급회사 '엡콧' 파산, 부채 약 21억 엔
 - 영화배급 선전 부문의 '아르 시네마테랑 디비전'을 소유한 엡콧, 도쿄 재판에 파산 신청, 3.02일 수리됨
 - 2004년 인기 한류드라마 DVD 배급으로 2009년 매상고를 약 26억 3,900만 엔까지 상승
 - 한류 붐의 여파로 일본 대기업의 작품 구매로 인한 매입가 급등과 최근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한류드라마의 수요 부진
 - 2014년 6월기 매상고 약 22억 4,800만 엔으로 감소
 - 새롭게 구축한 게임제작사업의 부진

- 2PM 황찬성, 일본영화 <와스레유키> 주연 발탁
 - 한국의 인기 아이돌그룹 2PM의 '황찬성', 일본 국내 70만부 베스트셀러인 '신토 후유키'의 소설을 영화화한 <와스레유키> 주연으로 발탁
 - 상대역은 <연결 : 츠나구>(2012) <위대한, 슈라라본>(2014) 등에 출연한 여배우 '오노 이토'
 - 감독은 <첫눈>¹⁵⁾(2007)의 '한상희' 감독으로 확정
 - 2015년 가을 일본 개봉 예정

14) 제38회 일본 아카데미 시상식(2015.02.27)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수상

15) 이준기와 미야자키 아오이 출연

□ 일본 영상시청미디어 이용실태 조사발표, 극장은 46.1%

- ‘영상미디어 유저 실태 조사 2015’ 발표(필드웍스, 영상미디어 종합 연구소)
 - 조사 대상 : 전국 5,000명 규모(13~69세)
 - 조사 매체 : TV방송, 영화관, DVD, 비디오, VOD 등 모든 영상 시청 미디어서비스의 유저 이용실태 조사, 분석
- 각 영상시청미디어서비스의 이용률
 - 영화관 : 46.1%
 - 무료방송 : 휴일 90.1%, 평일 89.0%,
 - 무료영상서비스 : 55.7%,
 - 패키지소프트 대여 : 33.6%,
 - 패키지소프트 구입 : 21.4%
 - 유료방송 : 19.8%
 - 유료 VOD : 8.5% (TV, PC, 휴대전화단말기)
 - 영상콘텐츠 데이터구입 : 7.2%
- ‘VOD 시장조사리포트 2014’(일본 (재)디지털콘텐츠협회)에 의하면, 2013년 VOD시장 규모를 2012년에 비해 21%증가한 약 1,230억 엔으로 추계함